

“준법감시쫓 ‘양형거래설’은 억지…호들갑 떨 일 아니다”

[기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재용 부회장 파기심, 재판부 ‘양형 사유’ 考察
“美양형기준 8장 ‘사람’도 포함… 法, 한국 맞게 적용”
“기업 준법감시기구, 감경요소로 인정하는 제도 필요”

◆‘양형 거래’라는 프레임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업무상 횡령죄 등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판사가 작년 12월에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에 따른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조언했다고 한다. 이에 삼성그룹 소속 7개 회사는 지난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월 5일 첫 회의를 했다.

재판부는 1월 17일 열린 제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양형심리와 관련해 삼성이 제시한 준법감시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이은 ‘양형거래’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했다고 한다. 시민·노동단체 등도 ‘부당거래’라면서 비난에 가담했다.

일부 언론인도 비난에 동조하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라 ‘기업’(organization)에 대한 양형기준이므로 이것을 ‘사람’인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 개요

미국에는 법인 등 조직에 적용할 형사판결 지침(US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미국판결위원회’가 제정한 ‘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제8장이 그것이다(이하 미국 양형기준이라 한다).

‘미국판결위원회’는 한국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미국

전역에 산재한 각급 법원 판결의 균질성을 위한 기구로, 한국 양형위원회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은 총 8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제8장은 조직이 범죄행위를 예방, 탐지 및 보고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벌, 적절한 억제 및 인센티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조직과 그 대리인이다.

먼저 ‘효과적인 법규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실점수’를 깎아 주도록 하고 있다.

‘자체 조사보고, 수사 등 협력 또는 책임 수용 자체’(self-reporting, cooperation, or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과실점수를 깎아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사후에도 ‘효과적인 법규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집행유예(Probation) 판결을 낼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제8장은 피고가 조직일 때 적용된다. ‘조직’은 ‘개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기업, 파트너십, 협회, 합자주식회사, 조합, 신탁, 연금 기금, 비법인 단체, 정부 및 정부의 정치적 하부기관,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다.

◆조직에 대한 미국 양형기준

한국은 원칙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미국에는 법인과 같은 조직 자체에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미국에는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 외에 조직에 대한 양형기준까지 마련한 것이다.

양형기준에는 각종요소도 규정하지만 감형기준도 규정한다.

미국의 경우 조직에 대한 감형요소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법규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이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 둘째 자체 조사보고, 수사 등 협력 또는 책임 수용 자체(self-reporting, cooperation, or acceptance of responsibility)이다. 후자는 한국으로 말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자세’일 것이다.

◆회복적 사법(司法)

죄와 벌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인을 처벌해 복수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이다.

탈리오의 법칙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데, 이 법전은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이 제정해 돌비석에 새겨뒀지만 재진 법전이고, 문명국에서는 폐지된 규범이지만 아직도 지구촌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처벌보다는 범법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서울고법 판사는 평소 ‘회복적 사법(司法)’(restorative justice)에 관심이 많아 이를 공부하고 논문까지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적 사법은 응보적 형사사법 또는 징벌적 형사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범죄를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역사회와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개념이다. 회복적 사법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당사자들이 한 곳에 모여 범죄로 야기된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의 회복, 당사자의 능동적·자발적 참여, 공동체의 역할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준선 명예교수 jsskku2@daum.net



기자수첩

마트 배송까지 막아놓고 일자리 만들라고?

유통업계가 또 위기에 봉착했다. 실적은 내리막이고, 이커머스에 시장 점유를 내주고 있다. 문제는 회복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유통업계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란 카드를 내밀었다.

롯데쇼핑은 전체 매장의 30%에 해당하는 약200개의 매장 정리할 예정이고, 신세계도 전문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철수하고, 수익이 저조한 점포는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다.

마이네스 실적에서 아쩔 수 없는 선배이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8년보다(4279억원) 28.3% 감소했고, 순손실은 8536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지난해 150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전년보다 67.8%나 줄어든 수치다.

유통업계는 위기 요인으로 강력한 규제를 지목했다. 정부는 2012년 대형유통기업에게 생존을 위협 받는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했다. 유례없는 규제 시작이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인근 출점을 막았고, 대형 유통기업 점포는 가장 매출이 좋은 주말에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월 2회 의무휴업 제도로 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 손실 약 25조9300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마트 외에 전문점, 할인점, 슈퍼 등을 모두 합치면 30조원을 상회한다.

규제는 배송까지 막아버렸다. 홈코노미가 트렌드인 현 시점에서 배송은 유통기업에게 필수조건이다. 쿠팡이 성장하게 된 배경엔 여러가지가 있지만 폭넓은 물류 인프라 영향이 가장 크다. 반면, 유통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폐점 이후와 휴무때 배송을 하면 위법

행위가 된다.

7년이 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시행했지만 그 시효에 대한 의문점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가장 먼저 소비자들의 불편이 제일 크다. 주말에 장을 봐야 하는데 마트 쉬는날을 체크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온다. 전통시장은 의무휴업을 시행한 지 오래됐지만 상황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전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기업인들의 협력을 촉구하고 건배까지 하며 독려했지만 일자리는 말로만 늘어놓지 않는다.

최근엔 오히려 복합쇼핑몰까지 규제하려는 기세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기업발목을 잡는 낡은 법을 버리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준영 기자 jly@meconomynews.com



기자수첩

이해육 ‘실적’은 안보이고 ‘5년전 過誤’만 보이나

대림산업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 1094억원, 영업이익률 11.4%를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고 성적이다. 이 같은 성과를 낸 당시 CEO는 이해육 회장이다. 그런데 3월 주총을 앞두고 사내이사 연임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누가, 어떤 팩트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논란의 근원은 이달 1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주주총회, 주요 그룹 지배주주 등의 재선 임 현황’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보고서에는 “30대 주요 대기업집단(이하 그룹) 지배주주 임기만료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이번 주총에서는 사회적 이슈(법령 위반 등)가 있었던 지배주주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지배주주의 2020년 주총 재선임안전이 안정적으로 통과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사회적 이슈와 관련 있는 대림, 효성, 롯데, 한진(영원권보장)그룹 지배주주 재선임안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 국민연금의 의견결구위, 전자투표편의

성 제고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이해육 회장이 노력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국민연금이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사를 낼 것’이라는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현재 이해육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지분 21.67%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 지분을 12.79% 보유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이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언급했을 뿐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기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다수 언론이 이해육 회장의 ‘사회적 이슈’로 아래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논란이다. 이해육 회장은 2015년 운전기사 운전권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년 전 일이다.

두 번째는 사익편취 논란이다. 대림산업 호텔 브랜드인 ‘GLAD’ 상표권

을 이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APD’에 넘긴 뒤, 대림산업이 상표권 사용료로 해마다 이 회장 측에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현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5년 전 과오와 형사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임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면, 살아남을 기업인이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다. ‘5년 전 일’, ‘열리지도 않은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사 이래 최고 성적표를 받아든 최고경영자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내이사 연임 반대 논란과 관련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착잡함이 묻어났다.

이해육 회장을 옹호할 마음은 없다. 현재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이 회장의 사내이사 반대 이유가 ‘인민재판’, ‘마녀사냥’과 같아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사익편취 재판이 끝난 뒤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스 코드’를 행사해도 늦지 않다.

정규호 기자 jh@meconomynews.com

스타 SNS



2020 경자년(庚子年) 3월의 띠별 운세

2020년 3월 1일 ~ 2020년 3월 31일까지 띠별 운세입니다
사주역학의 만남 라이프비전(www.lifevision.co.kr) 제공



쥐(자, 子)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서 갈등이 생긴다. 순간의 선택에 회피가 엿갈림. 84년생 결정할 중대한 고민거리가 생긴다. 고전의 말씀을 따르라. 72년생 업무 실적이 저조해 명예가 실추된다. 원망하기 이전에 반성. 60년생 또 아니면 도가 될 순간. 하늘의 뜻에 맡겨라.



소(축, 丑)

정당한 일만이 성공한다. 비공식적인 계약이나 약속 피하도록. 73년생 애정전선이 원만치 않다.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 61년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계획한 일을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



호랑이(인, 寅)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움직여야 승리가 트인다. 74년생 시간이 걸린다고 조금씩 하면 만된다. 대기만성의 진리를 잊지 않도록. 62년생 자녀에게서 힘을 얻는다. 대중교통 이용이 유리하다. 50년생 하는 일에서 성과를 본다. 스포츠 관람으로 기분 전환.



토끼(묘, 卯)

열 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계속 전진하라. 미혼의 경우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놓고 다툰다. 초지일관 마음이 필요하다. 63년생 동료와 사소한 일로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 51년생 자동차 문제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양보하는 선에서 흥겨워 해라.



용(진, 辰)

유쾌한 일이 별로 없다. 식욕부진에 빠질 수 있으니 폭 자기 일이나. 76년생 쓸데 없는 고집으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손해를 초래한다. 64년생 새사업 고전이 예상되니 몇 개월 더 기다려라. 52년생 여행 중 좋지 않은 일이 예상되니 출발을 늦추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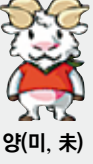
뱀(사, 巳)

가장 불화가 점점 깊어진다.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라. 77년생 이제는 정신 차리고 본분으로 돌아올 때이다. 모두가 걱정한다. 65년생 진행중인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실패.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53년생 잘 아는 사람을 오히려 조심.



말(오, 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금씩 성장, 발전하는 사람이다. 78년생 미운 오리 새끼가 거울을 지나 백조가 되는 격. 계속 정진할 것. 66년생 상사가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는 것은 사람의 관심이다. 54년생 밖에서 큰 이익. 가족 양로로 분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미, 未)

집을 떠나거나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있다. 떠남이 길하다. 유학 뜻을 품어온 학생은 유학운이 있으니 준비를 하라. 67년생 낮에 친구자이나 동료간에 말다툼이 있으나 저녁에 화해한다. 55년생 집안에서는 기둥이며 어려운 회사를 화성시키는 견인차 역할.



원숭이(신, 申)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면 길하다. 80년생 집에서 옛날 추억의 자료들을 들춰보고 즐거운 회상에 젖는다. 68년생 부부나 연인은 좋은 시간을 가지나 저녁 늦은 시간은 좋다. 56년생 아침에 자람을 놓고 나가서 애먹으나 생각지 못한 돈이 생긴다.



닭(유, 酉)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다.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가 못 된다. 69년생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일을 만나다. 57년생 결정을 확실하게 내려서 움직여야 금전에 손해가 없다. 주위 사람의 조언을 잘 들어야 흥행을 면하게 된다.



개(술, 戌)

어떤 일을 하든지 이득이 없고 나아가고 물러남이 결정되지 못하므로 속이 탄다. 성급은 이성 문제로 괴로움을 면하기 어렵다. 70년생 두가지의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58년생 여행을 절대 삼가야한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 답답한 상황을 맞는다.



돼지(해, 亥)

모든 일에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 신임을 얻을 수 있다. 71년생 처신을 잘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을 수 있다. 59년생 인내심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일단 이 위기를 넘기면 탄탄대로다. 이성 문제만 주의하면 모든 일이 좋아질 수 있다.